GS칼텍스 여수공장,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확대

회사 사회공헌 프로그램 연계…맞춤형 에너지키트 전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위해 정진하는 청소년 응원"

GS칼텍스 여수공장이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최근 본관 에너지플러스홀에서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 진로 지원 사업인 '에너지드림'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드림 대상 학생과 보호자, 미평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소개, 에너지키트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에너지드림은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소액기부 WEEK 천원의 행복'과 전략적으로 연계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비 지원과 더불어 '에너지키트'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에너지키트는 비전 선언문과 액자, 색연필, 비타민, 무선 헤드셋 등 진로 지원 도구로 구성됐다.

조리사를 꿈꾸는 학생에게는 레시피북을, 수영 선수를 꿈꾸는 학생에게는 수경 파우치를 선물하는 등 개개인의 꿈에 맞춘 맞춤형 선물도 함께 전달됐다.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 모습을 시각화하는 진로체험 활동 '비전보드 만들기'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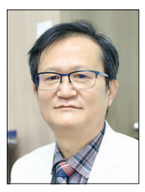
GS칼텍스 관계자는 "에너지드림 사업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정진하는 지역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자신감을 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GS칼텍스는 최근 여수공장에서 에너지드림 전달식을 진행했다.

신임 조선대병원장에 최남규 외과 교수

"의료 환경 변화 속 책임 경영"…집행부 구성도 완료



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제26대 병원장으로 최남규 외과 교수(사진)가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최남규 신임 병원장은 외과 전문의로 조선대병원에서 부원장, 진료부장, 장기이식센터장, 외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최남규 신임 병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성원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높혀 강한 추진력과 실행력으로 병원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최 신임 병원장과 함께 집행부 구성도 완료됐다. 진료부장과 교육연구부장 등을 역임한 김동휘 정형외과 교수가 부원장에 임명돼 공식 업무에 돌입했으며, 의생명연구원장에 고재웅 안과 교수, 기획조정실장에 신병철 신장내과 교수가 임명됐다. 진료부장에는 김윤성 류마티스내과 교수, 교육수련부장에는 김유석 외과 교수, 대외협력실장에는 이현영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최남규 신임 병원장의 취임식을 조만간 열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조용익 담양군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

"담양 대표하는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노력"

조용익 전 담양부군수(66·사진)가 3일 담양군문화재단 제2대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날 담양군청 접견실에서 정철원 담양군수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철원 군수는 "담양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계승과 발전에 힘써 달라"며 "군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넓혀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용익 대표이사는 "담양은 이미 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시다"며 "이제는 그 가치를 한 단계 더 확장해 군민 모두가 예술인이 되는 문화도시로 나아가야 할 때다"고 답했다. 이어 "사람이 곧 문화가 되는 담양, 새로운 르네상스를 여는데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용익 대표이사는 재단 임직원과 함께 한 취임 자리에서도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생태와 인문, 정원이 어우러진 담양만의 고유한 자산을 문화로 재해석해 나가겠다"며 "내년 담양정원박람회에 재단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담양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힘을 더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정렬 기자

광주도시공사는 3일 사옥 대회의실에서 사측 대표와 노동조합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공동 갑질 근절 선언식'을 진행했다.

광주도시공사 '갑질 근절' 조직문화 조성 앞장

노사 공동 선언식…상호 존중 바탕 근무환경 정착 약속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 노사가 기업 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터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도시공사는 3일 사옥 대회의실에서 사측 대표와 노동조합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공동 갑질 근절 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위 및 직무상 우위를 악용한 부당 행위를 차단하고 배려가 일상화된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기획됐다.

식순은 예방 홍보영상 시청, 공동 선언, 기념촬영으로 이어졌다.

양측 대표는 선언문을 낭독하며 직원 인격 존중 및 차별 없는 일터 구현, 모든 형태의 갑질 근절, 예방 활동 및 상시 점검 강화, 피해자 최우선 보호 및 가해자 엄벌,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운영 실천을 결의했다.

김승남 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라며 "공공기관에 걸맞은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으로 상호 배려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팔 노조위원장은 "존중은 건강한 일터의 출발점"이라며 "노동조합도 사측과 협력해 제도 안착을 수시로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도시공사는 3월을 '상호 존중의 달'로 지정해 릴레이 다짐 챌린지, 위반 사례집 발간 등 실효성 높은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문화재단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운영성과 '인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한국문화예술위원장상
우수 지역 주관처 선정…"이용 편의 위한 지원 지속"

광주문화재단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지역 주관처로 선정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서울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 참석해 우수 지역 주관처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주관처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광역재단 담당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포상은 문화체육관광부 표창 43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61점 등 총 104점이 수여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사업 담당자 또한 유공자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기관과 개인이 동시에 수상해 2관왕을 거뒀다.

지난해 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2위(97.51%)를 기록했다. 지역 대표 문화축제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임시 가맹점 등록을 확대했다. 특히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전년 대비 18배 증가했으며, '광주김치축제'에서는 전년 대비 문화누리카드 매출 1.5배 상승했다. 이는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지역 주관처로 선정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전수식에는 전국 63개 행정복지센터에서 '누락 대상자 발굴 권리구제 서비스' 우수 업무 추진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광주는 광산구 첨단2동 행정복지센터와 동구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앞으로도 96개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한화솔루션㈜ 여수공장 최근 여수선경볼링장에서 여수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한화솔루션과 함께하는 유소년 볼링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제공=한화솔루션㈜ 여수공장

한화솔루션㈜ 여수공장, '유소년 볼링대회' 성료

전문 레슨 진행…아동 성취감·화합 도모

한화솔루션㈜ 여수공장 최근 여수선경볼링장에서 여수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한화솔루션과 함께하는 유소년 볼링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 3년째를 맞이한 '유소년 볼링 프로그램'은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한화솔루션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지역아동센터 아동 40여명은 총 24회에 걸쳐 전문 강사로부터 볼링의 기본 자세, 게임 방법, 매너 등을 교육 받았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동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했으며, 다 함께 간식을 나누며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도입 초기부터 참여한 아동들은 눈에 띄게 향상된 기량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화솔루션㈜ 여수공장 관계자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볼링을 통해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솔루션㈜ 여수공장은 '혼자 빨리보다 함께 멀리'라는 한화그룹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이주여성 정착 '온힘'

레드하모니 학교 입학식 개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최근 신안군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이주여성의 정착을 돕기 위한 '서로! 같이! 레드하모니 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주전남협의회 임원과 신안군 가족센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증서 수여, 신입생 대표선서와 학사일정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입생들에게 '단단한 성장'을 기원하는 다육이 화분을 입학 선물로 전달하며 멘토와 멘티가 첫 만남을 가졌다.

입학식 이후 이어진 2회차 프로그램 'AI로 여는 내일, 함께하는 배움'에서는 번역, 정보 검색, 자녀 교육 등 실생활 밀착형 교육을 다뤄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들의 자립 역량을 높였다. 레드하모니 학교는 6월까지 제빵 봉사활동, 문화체험, 해양치유 프로그램, 성장 나눔 워크숍 등 총 7회차로 운영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동부경찰, 아동안전지킴이 발대

상황별 대처요령 등 안내

광주 동부경찰은 3일 소회의실에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된 16명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역할과 임무, 행동 수칙과 아동 보호를 위한 상황별 대처요령,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부소방서 외부강사 초청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공원,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 배치돼 순찰 활동을 하며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김중호 동부경찰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들이 통학로 아동 안전 확보, 범죄 예방 등에 대한 치안 보조 역할자로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경 협력 치안활동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